

하원 법원기구, 독립기관, 검찰기관, 국영기업, 공단 및 기금 위원회의 위원장인 짜라유 후영쓰압 (Mr.Jirayu Huangsab)은 태국 낙농업 진흥회 전 회장인 윈야 마까라퐁 (Mr. Winya Makarapong)의 ‘태국 낙농업 진흥회의 계약을 불이행 및 부정행위’라는 탄원서를 접수했다.



2021년 10월 1일 (금), 오전 11시 경 국회의사당 1층에서 하원 법원기구, 독립기관, 검찰기관, 국영기업, 공단 및 기금 위원회의 위원장인 지라유 후영쓰압 (Mr.Jirayu Huangsab)은 태국 낙농업 진흥회 (DPO) 전 회장인 윈야 마까라퐁 (Mr.Winya Makarapong)의 ‘태국 낙농업 진흥회의 계약을 불이행 및 부정행위’ 라는 탄원서를 접수했다.

이는 태국 낙농업 진흥회 (DPO)는 (주)프리미어 프로팩 (Premier Pro Pack) 라는 회사가 임대 형태로 컨겐의 DPO 공장에 설치할 2개 라인의 포장 기계 및 장비를 가져오는 데 투자하도록 초청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주)프리미어 프로팩이 8년간 최저가로 낙찰자로서 2017년 2월 10일에 우유생산용 기계 납품을 시작하게 됐으며, 2017년 2월 10일부터 2021년 5월까지 생산에 사용됐다. 그런데 DPO는 포장지를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에 사용된 포장지가 없어졌다. 그 결과로 인해 포장 기계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생산을 중단되었다. DPO의 그러한 행동은 계약을 불이행하고 부정행위로 간주했으며 (주)프리미어 프로팩에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기관에 더 이상의 치욕을 주지 않기 위해 진위조사를 진행하기를 요구했다.



찌라유 후엥쓰압 (Mr.Jirayu Huangsab)은 탄원서를 받은 후 이 문제를 사전 고려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후에 추가 고려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이익 또한 피해자의 대의를 위하여 정부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편집: 태국 하원사무처

번역: 니싸폰 쏏티만,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지원사무국